

## 일곱번째 주 Week 7

이사야 43:1-7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Compared to God?”)

###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관계적 존재이신 당신의 본을 따라 저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알고, 또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다른 이들을 알아가도록 허락해주신 기회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삶이 어렵고 고단할 때, 당신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삶 한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구하는 것은, 저희 상황 가운데 가장 어둡고, 당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 안에서 위안과 평안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예언들(divine prophecies)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격려를 가져다 주는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 특징은 놓치지 쉽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이 진작 알았어야 했고 받아들였어야 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 구절은 본문을 샌드위치 형식으로 감싸는 구조로 쓰여져 있는데, 그 속에는 야훼 하나님(Yahweh)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직 자신에게만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1 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렇기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했다. 나는 토기장이이고 너는 내 손에 빚음을 받는 토기이다. 어떤 모양으로 내가 빚어지든, 그것은 나의 창의로운 활동으로 인함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7 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이름이 곧 너의 이름이니,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알리거나, 너가 속한 국가의 영광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너는 나에게 영광돌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너는 열방 가운데 나를 알리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너의 하나님이 말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 장에 나오는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신적 위계질서(the divine pecking order)를 그들의 삶에 자리 한 가운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의 존재목적은 항상 그들 자신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국가들은 항상 자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을 높이려는 경향을 지녀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유혹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수염을 뽑으며 애통해 했던 장면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상 8 장).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왕을 얻기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다른 열방의 국가들의 오만하고 자기 영광만을 높이는 모습들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지, 그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사무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했고, 결국 그들이 원한대로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제국은 부패와 이기심이 만연한 체, 부와 영광을 위해 열망으로만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국가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전망이 대한 기록을 담은 이사야서 초반부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속해 있던 것들(the things of God)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가 지어진 목적이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를 돌려드리는 것임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 43 장에 묘사된 진정한 보호와 소망, 위안을 누구보다도 갈망했습니다. 1 절과 7 절 말씀에서 언급된 메시지, 즉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소유 아래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망각한 체로 말입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인류에게 찾아들어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에 대한 언급을 소홀히 한 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 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임하신 부와 재산들을 두고 어떤 의무가 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신 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요구(the divine demands)에 응답하지 않으며 신적 공급(the divine benefits)만을 얻기 원합니다.

이 구절들에 드러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2 절에서 반복되어 언급되는 “때...” (“When...”)라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언급된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려움들을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물과 불을 지나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끔찍했던 여러 충격사건들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기만행위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에는 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적지 않은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적히 대면해야 할 진리는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마지막 참석할 장례식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 한 가운데, 또 그 과정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침내 도래할 그분의 나라 가운데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줄 새로운 것들이 항상 남아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자원 가운데 갇혀 내버려지게 될 것이라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인본적 낙관주의와 우리 인격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이 더욱 깊이 차오를 때, 우리 목까지 차오른 강물이 사납게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삶의 연단에 불꽃들이 우리를 태우려 그 혀를 내밀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43 장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안을 얻는 데 꼭 필요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두 사실을 깊이 상기시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이 되고 그 분이 어떤 분이시며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위임하는 순간, 우리는 설사 시험의 한 가운데 있을 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론해볼 주제:**

- “하나님께 속한 다”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위안으로 다가오나요?
-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해라, 내가 너를 내칠 것이다. 떨어라, 내가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기를 그만 둘 것이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돕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상을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사야 41:10 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사 41:10).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의해 뒷받침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러갑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빛가운데로 드러냄으로써(naming our fears),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배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들여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개인적인 것들도 되고, 그룹과 관련된 것도 가능합니다.
- 그 두려움들이 당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 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세요.
- 요한복음 16:32-33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그 문제 자체가 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애통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이 문제들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에서 당신에게 이 사실들을 일깨워 줄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주는 위안으로 당신과 함께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